

가입자 수 늘었지만 수익성은 글썩

카드업계 '애플페이 도입' 눈치챈

우선진입 현대카드, 회원 급증
거래액 부문에서는 반등 못해
소비력 높은 기성세대 사용 저조

애플페이 진입을 놓고 카드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대카드가 우선
진입을 통해 신규 회원 가입률 1위를
달성했지만, 거래액 부문에서 반등을
피하지 못해서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여부를 놓고 눈치싸움이 지속될 전망
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카드의 본인 명의 신규 가입자 수
는 15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에 이어 집계에 포함된 8곳 전업 카드
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
리·하나·비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3개월 사이 총가입자 수를 놓고 업계
3위인 KB국민카드와 격차를 좁혔다.
지난 4월 현대카드의 총회원 수는 1165
만9000명으로 올해 2월(1143만명) 대비
2% 올랐다. 신규 회원의 수가 둔화하고
있는 카드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애플
페이 진입은 성공적이다. 같은 기간 KB
국민카드의 총회원 수는 1169만3000명
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1159만9000
명) 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품판매에는 성공했지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윤액 부문에서 부진을 면
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2~4월
현대카드의 거래액 상승세는 우리



애플페이 진입을 놓고 카드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18.4%)·롯데(11.6%)·비씨카드
(11.2%)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애플
페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떨어
질 것이라 관측이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은 애플
페이 진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진다. 상
표가치 체고 기능은 입증됐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장담하기에는 시기상조라
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수익성
을 고려해서 진입해야 하는데 관련 데
이터와 정보가 없으니 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꼽히
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둔화 원인으로 NFC단말기와

MZ세대 중심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
고 평가했다.

우선 NFC단말기 보급이 속도를 내
지 못하고 있다. 이달 스타벅스가 애플
페이 가맹점 대열에 합류하면서 업계
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지만 여전히
편의점, 대형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마땅한 사용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애플페
이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5% 미만
일 것으로 추산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의 선호
도가 높다는 것 또한 거래액 둔화의 주
요인으로 등장했다. 구매력과 소비력
이 높은 기성세대의 아이폰 사용률이
낮아 애플페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한국결제업이 발표한 '스마트
폰 사용자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30
대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애플과 삼성
의 제품이 비슷하지만 40대 이상에서
는 삼성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50~60대의 경우 삼성의 점유율이 80%
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한다. MZ세대 공략을 위해 애플페이 진
입은 필수적이라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체율, 조달
비용 등의 이슈가 해결되면 애플페이
진입에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기말기준, 억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A	
					3월(A)	4월(B)		
미달러화	687.8	800.4	829.6	953.8	843.3	792.0	(86.7)	-51.3
엔 화	44.5	54.4	52.5	66.1	56.6	53.2	(5.8)	-3.4
유로화	32.9	47.1	52.0	55.0	48.8	44.5	(4.9)	-4.3
위안화	14.2	19.8	18.7	17.8	12.8	12.3	(1.3)	-0.5
기타통화2)	15.0	20.3	19.9	17.1	13.4	11.9	(1.3)	-1.5
합 계	794.4	942.0	972.7	1,109.8	974.9	913.9	(100.0)	-61.0

주 : 1) < >내는 비중(%) 2) 영국파운드화, 호주달러화 등 /한국은행

4월 달러 중심 외화예금 61억 달러 감소

달러화 예금 51.3억 달러 줄어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외화예금이
61억달러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이 수
입대금을 결제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자금을 인출하면서 달러화예금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4
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
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
화예금은 913억9000만달러로, 전월 대
비 61억달러 줄었다. 거주자 외화예금
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
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
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달러화예금과 유로
화예금이 큰폭으로 줄었다. 달러화예
금은 51억3000만달러 감소한 792억달
러를 기록했다. 기업이 수입결제대금

을 지급하고, 해외 직접투자 자금을 인
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대로 상승한 것도 기업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220원대이던 환율은 3월
에 이어 4월 1320원대까지 뛰었다. 일
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기
업이나 개인은 차익실현을 위해 비싸
진 달러화를 내다파는 경향이 있다.

유로화예금도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급으로 감소했다. 유로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한 445
억달러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58억3000만달러 감소한 820억2000만
달러를, 외은지점은 2억7000만달러 감
소한 93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기업예금은 54억1000만달러
감소했고, 개인은 6억9000만달러 줄었
다. /나유리 기자 yul115@

AI 공들이는 2금융권, 제도 정비 병행해야

챗봇서비스 등 고객 편의성 높지만
모바일 뱅크런 우려 안전장치 필요

2금융권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
스 출시에 공을 들이면서 경계의 목소
리가 나온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
할 수 있지만 이탈도 쉬워져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유행
을 드러내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보험
사와 신용카드사가 AI 기술 활용에 적
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AI
기술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의견이다. 보험인수, 보험금 청구·심사
·지급, 사후 소비자 서비스 등 전 분야
에 걸쳐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AI 기반 데이

터 가공에 속도를 낸다. 단순 상담은 물
론 소비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에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의 AI 활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진입 문턱
이 낮아진 만큼 이탈 또한 쉬워서다. 디
지탈 전환이 올해 미국 내 주요 은행 파
산에 속도를 더한 요인으로 지적받은
만큼 연체율, 유동성 등 신용관리에 집
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업권은 데이터 활용 의지를 적
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공공의료데
이터 활용을 최대 숙원 과제로 책정하
고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국내 보험사의 AI 활용도는 단
순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

는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AI 활
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월 'AI 컨택센터'
의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업무를 비롯
해 상품 완전 판매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미래에셋생명 또한 AI
기반 '챗봇서비스'를 도입했다. 카카오
톡을 활용한 보험가입상담과 업무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슈어테크'시장의 성장이 접착지
는 만큼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슈어테크란 보험 업무
에 AI 등 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
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8년 세계 인슈
어테크 시장이 609억달러(한화 80조
705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 또한 확
대될 전망이다.

/김정산 기자

금융권, 29일 휴무... "한도 확인 하세요"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예금 만기일 30일로 연장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만기일과 각종 결제일이 30
일로 자동 연장된다. 당일 부동산 매
매·전세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
으로 거래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상향시
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
항'을 내놨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은행·보험·
저축은행·카드사의 대출금 만기일이
29일 경우 만기일은 연체이자 없이 30
일로 연장된다.

예금 만기일도 30일로 연장된다.
단,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
우 전영업일인 26일에 인출할 수 있다.
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
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는 일반적
으로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공휴일 전 영업일인 26일에
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일자
가 29일이라면 이용대금은 30일에 출
금된다.

보험금 지급일이 29일 전후라면 사
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돼야 한다. 26일

<관련규정상 인출·이체한도>

구분		1회	1일
		이체한도	이체한도
현금 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 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 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
사에 한도를 확인 /금융위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내달 1일 받
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9일 부동산 매매·전세거
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래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
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
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
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은행
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과 거
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
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일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금융회
사 영업점에 문의하고, 추가 궁금한 사
항은 금융원 통합민원콜센터로 문의하
면 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새마을금고, 카톡 이모티콘 나눔행사

'창립 60주년' 기념 무료 배포

새마을금고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나
눔 행사를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축하 이모티
콘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

일 밝혔다.

선보인 이모티콘은 새마을금고의 캐
릭터인 '블루원정대'와 '김금고'를 활
용했다. 총 16종으로 움직이는 이모티
콘으로 구성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6만명에
게 무료 배포한다. 새마을금고 공식 카



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면 누구나 자동
으로 받을 수 있다. /김정산 기자